

지역 소식통

고창군, AI 차단 위해 동림 저수지 출입통제소 운영

고창군이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AI(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입통제는 동림저수지 주요 진입로에 통제소 3개소를 설치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순찰 등을 통한 외부인과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특히 강화된 출입통제에도 낚시 어로 행위나 철새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등 넓은 면적의 철새 도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군은 주민들 스스로 양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인근을 오가는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고창군 청 생태환경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1년산 입담배180톤 수매 실시

고창군이 올해 생산된 입담배를 오는 8일까지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주관으로 수매를 진행한다.

현재 연연초생산자조합은 약 1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78ha의 밭에서 매년 연연초를 생산 22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입담배는 수확한 후 후기작으로 무 배추, 두류 등 기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 농가들이 선호하는 작물이다.

입담배 수매는 고창군 무장면에 소재한 입담배 손질포장장에서 실시하게 되며, 수매 계획량은 115농가(78ha)에서 생산한 180톤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입담배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입담배 경작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매년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느때 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담배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재해”

권익현 부안군수, 송영길 민주 당대표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 만나 강력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부안지역 벼 병해충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등분사주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날 30일 전북지역 벼 병해충 피해현장을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농업재해 인정을 강력히 주장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면담하고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가을장마(8월 15일~9월 6일)로 인해 병해충 방제횟수를 기존보다 늘렸으나(2회~4회) 이상도열병 등 피해가 확산했다고 강조하고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또 병해충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량량 전량 매입과 매입단가를 2021년 1등급 단가의 80% 이상으로 결정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품종이 최대 2개 품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발생시 피해가 커져 쌀 안정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품종 선택권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품종 확대를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병해충 방제횟수를 늘렸지만 벼 병해충 피해가 확산된 만큼 "우리 부안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4일 2021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현장인 행안면 광일창고를 찾아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권익현 부안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4일 2021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현장인 행안면 광일창고를 찾아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도열병, 세균병, 마름병 등 병충해로 인해 평년에 비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벼 품질이 저하되는 등 벼 농사 피해로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수매현장을 방문하여 상심에 있는 농심(農心)을 위로했다.

부안군은 지난 달 15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말 건조벼까지 총 9,046여톤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40kg포대당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지급하고 이후 수확기(11~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 말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병충해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시장, 지역 청년들과 소통 · 공간의 장 마련

지역 문화발전 방안 · 청년인구 감소 문제 등 논의

소통과 공간의 시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유진섭 시장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3일 문화복지지역조성사업단 1층 공리존에서 문화도시 청년기획단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읍시가 문화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에 공모 중인 가운데 정읍 문화발전을 위한 방안과 유년 해결점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정읍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에 대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뜻에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과 청년들은 청년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내 청년 그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유진섭 시장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를 부채 문제의 해소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또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과 문화도시와 관련된 청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년고찰 문수사와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 11월 가볼만한 곳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은 그 명성답게 여행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가을명소가 곳곳에 많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선운산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은곡습지, 선운사와 함께 고창의 단풍명소로 생명을 이루고 있는 문수사가 대표적이다.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는 11월 가볼만한 곳으로 단풍이 아름다운 문수사를 선정했다. 문수산(621.1m) 종턱 해

발 320m에 자리한 문수사는 644년(의자왕)에 창건된 천년 고찰로 문수보살과 관련된 창건설화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율사가 이곳을 지나가다 중국의 청량산과 흡사한 산세와 수세에 걸음이 멈춰 굴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꿈 속에서 문수보살을 뵈고 땅 속에서 문수보살 석상을 꺼내 모시고 절을 세웠다.

일주문을 지나 나오는 문수산 단풍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 46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수령은 100~400년



으로 추정되는데 노거수를 포함한 약 500여 그루가 다양한 집목들과 어우러져 자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외식환경 조성 음식점 시설개선 '전폭 지원'

정읍시가 국내의 관광객의 수용 여건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사업은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 사업 내용은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과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입식 테이블과 주방 집기류, 외국어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시설개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수로 비말 예방 칸막이 또

는 파티션 등 방역을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2억7,400만원을 투입해 음식점 47개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2억4,100만원이 투입된다.

1개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지난 상반기에는 1억6,300만원을 투입해 총 26개소가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업소 25개소 가운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7,800만원을 지원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